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

조 명 숙¹⁾ · 송 미 라²⁾ · 차 선 경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Sackett, Straus, Richardson, Rosenberg 와 Haynes (1997)는 의학에서의 EBP를 임상결정 시 체계적이고찰을 통해 도출된 활용가능한 최선의 근거에 임상실무자의 경험, 환자의 선호도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간호에서도 EBP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며 Sigma Theta Tau (Scott & McSherry, 2009에 인용됨)는 간호에서의 EBP를 활용가능한 최선의 근거와 간호 전문성, 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가치와 선호도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EBP는 외국의 경우 1990년대 초 이미 활성화되어 임상적 근거를 수집하고 분석 및 종합하여 건강관련 의사결정 시 근거를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다(Thiel & Ghosh, 2008). 1993년과 1996년에는 국제적 협력체인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과 Joanna Briggs Institute (JBI)가 설립되었으며, 이 단체들은 활용 가능한 근거의 질 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최선의 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다양한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임상에서는 연구와 실무 간의 차이감소, 의료의 질 향상, 환자 안전의 중요성 등이 대두되어 전략적으로 EBP를 적용하는

한편, 양질의 간호와 최상의 결과를 위해 간호영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Pathman, Ricketts, & Konrad, 2006; Robin, Sandra, Stephanie, Linda, & Kathleen, 2007).

반면,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에 EBP의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하여 실무에서의 EBP 활성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필요성에 비해 활성화 정도는 낮은 현실이다. 그러나 향후 간호실무현장의 EBP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병원과 간호조직의 노력이 대두될 전망이다.

EBP는 신뢰도나 타당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대상자 간호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어(Oh, Oh, & Lee, 2004), 연구결과의 활용(Research Utilization, RU)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RU는 연구결과의 사용을 의미하는 반면, EBP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비평적으로 분석하여 근거의 강도가 높은 최상의 결과를 선택하고, 임상전문가의 경험과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임상에서 활용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Robin et al., 2007).

EBP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대상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의 또는 최선의 근거를 찾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실무자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연구근거를 검색하는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Thiel & Ghosh, 2008), Olade (2004)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연구

주요어 : 근거기반실무, 간호사, 연구

* 2009년 삼성서울병원 임상간호연구 학술비 지원 받음.

- 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임상간호학교실 부교수
 - 2) 삼성서울병원 간호업무개발팀 간호파트장(교신저자 E-mail: sami922@naver.com)
 - 3) 삼성서울병원 간호업무개발팀 간호사
- 접수일: 2011년 4월 14일 수정일: 2011년 6월 13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30일

근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20.8%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연구를 비판적으로 읽고 검토하며, 실무에 연구기반의 근거와 다른 근거들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Sherriff, Wallis, & Chaboyer, 2007).

EBP와 관련된 간호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는 1990년대 초부터 연구결과 활용의 장애요인 및 촉진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간호에서의 EBP 개념(Nolan & Bradley, 2008; Scott & McSherty, 2009), EBP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 인식(Estrada, 2009; Melnyk et al., 2004), EBP 수행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Adib-Hajbaghery, 2007; Nagy, Lumby, McKinley, & MacFarlane, 2001), 임상간호현장에서 EBP의 활성화 사례(Gerrish, Ashworth, Lacey, & Bailey, 2008)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연구활동이나 연구결과 활용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Kim, Kim, Kim, Byun, & Jung, 2002; Oh et al., 2004; Yang & Gu, 2005). 그러나 EBP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이나 EBP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임상현장에 EBP를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EBP를 활용하여 대상자들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상에서 EBP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여건들에 대해 간호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활동이나 연구결과 활용의 관련요인 파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EBP를 활성화하고자 간호조직 차원에서 EBP 프로그램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EBP관련 특성과 EBP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상에서 간호사들의 EBP 수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EBP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촉진요인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여, 실무현장에서 EBP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EBP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EBP 촉진요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EBP관련 특성에 따른 EBP 촉진요인의 차이를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 EBP관련 특성

대상자의 연구방법 수강, 통계분석방법 수강, 연구 수행 경험, 학회회원 가입, 학회 참석, 논문 읽기(한 달에 한 번 이상), 임상에서 연구근거의 필요성 인식, 연구근거가 필요한 경우, 정보자원으로서 연구근거를 찾는 출처를 의미한다.

● EBP 촉진요인

간호사들이 EBP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한 요인으로 EBP 발전을 위한 조직의 지원, 임상실무를 위한 EBP의 가치에 대한 신념, 논문의 검색 및 평가기술, 연구관련 전문 용어와 통계에 대한 지식, EBP 수행을 위한 시간보장과 시간 할애 의지를 의미하며(Nagy et al., 2001), Nagy 등(2001)이 개발하고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EBP 촉진요인 도구로 측정할 점수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EBP 촉진요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의 일 상급종합병원의 EBP관련 교육에 참여한 간호관리자와 일반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EBP관련 교육 참석자는 간호조직에 속한 간호사 1816명 중 각 간호단위의 간호관리자와 간호사 2-3인씩으로, 가능한 모집단을 대표하고 자료수집의 편중을 줄일 수 있는 대상이었으며 예상 대상자수는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의 평균 참석자수의 10%내외로 총 270-330명 이었다. 설문지는 총 312부를 배부하였고,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간호사 236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75.6% 이었다. 이중 응답이 미비한 6부를 제외하고 230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 가 .05, 효과크기 f 는 .25, 검정력 $1-\beta$ 는 .80, 그룹 수를 6으로 할 때, 결과 표본수는 총 216명이었다.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6문항, EBP관련 특성에 대한 9문항, EBP 촉진요인 29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 EBP관련 특성

EBP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연구결과에 기반하므로 EBP관련 특성의 많은 부분이 연구활동과 관련됨(Oh et al., 2004; Park, 2006)에 근거하여, EBP관련 특성은 연구관련 활동 및 근거기반 실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연구방법 수강, 통계분석방법 수강, 연구수행 경험, 학회회원 가입, 학회 참석, 논문 읽기(한 달에 한 번 이상), 임상에서 연구근거의 필요성 인식, 연구근거가 필요한 경우, 정보자원으로서 연구근거를 찾는 출처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EBP 촉진요인

간호사들이 EBP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Nagy 등(2001)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Nagy 등(2001)이 문헌고찰과 간호사와의 질적면담내용 분석을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고 816명의 대상자에게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한 도구이다. 먼저 도구의 사용에 대해 도구개발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간호학 교수 2인과 간호학 박사 1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번역 시 해석의 문제 등 국내 실정에 부적합한 1가지 요인을 포함하여 3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또한 원 도구는 'EBP를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라 명명되어 있으나, 문항이 EBP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도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EBP 촉진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의 인증을 받은 번역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한국어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친 후, 한국어 버전의 설문도구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는 5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보통이다" 3점, "동의한다" 4점,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EBP 수행을 위한 촉진요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종도구는 EBP 발전을 위한 조직의 지원 12문항, 임상실무를 위한 EBP의 가치에 대한 신념 8문항, 논문의 검색 및 평가기술 4문항, 연구관련 전문용어와 통계에 대한 지식 2문항, EBP를 위한 시간보장과 시간할애 의지 3문항 등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 개발 당시 EBP 발전을 위한 조직의 지원, 임상실무를 위한 EBP의 가치에 대한 신념, 논문의 검색 및 평가기술, 연구관련 전문용어와 통계에 대한 지식, EBP를 위한 시간보장과 시간할애 의지의 Cronbach's $\alpha = .84, .79, .81, .73, .5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88, .82, .70, .66$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2월 한 달 동안이었으며, 자료는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EBP관련 교육장소에서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설문조사 실시 전에 연구목적, 연구진행절차, 사생활 보호, 연구목적으로의 활용, 자료보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에 직접 자가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으며 설문 소요시간은 5-10분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EBP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EBP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EBP관련 특성에 따른 EBP 촉진요인에 대한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집단간 비교를 위한 사후검정은 Duncan multiple range test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EBP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은 32.3세로 20대와 30대가 대상자의 82.1%를 차지하였다. 교육정도는 학사가 57.0%였으며, 석사과정 중 이거나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39.2%였다. 간호사들의 평균 임상경력은 9.4년 이었고, 최소 3개월에서 32년까지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4.8%, 전문간호사가 2.6%, 수간호사 이상의 관리자가 22.6%를 차지하였다. 또한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54.0%였고, 수술실, 회복실, 투석실, 정맥주사팀 등의 기타부서 근무자가 24.6%였다.

연구대상자의 EBP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72.5%가 연구 방법을 수강하였고 통계분석방법을 수강한 경우가 71.3%였으며, 47.6%가 임상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회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44.7%였으며, 최근 1년 내에 학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9.5%였다. 한편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구논문을 읽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5.8%였다. 대상자의 97.3%가 임상에서 연구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구근거가 필요한

경우는 간호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할 때 38.6%, 유능한

전문가가 되고자 할 때 24.6%의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연구근거가 필요한 경우 정보자원으로서 학술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논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75.3%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0)

Variables	Classification	n (%)	M (SD)
Gender	M	1 (0.4)	32.3 (6.73)
	F	228 (99.6)	
Age (yr)	23-29	113 (49.1)	
	30-39	76 (33.0)	
	40-49	38 (16.5)	
	≥50	3 (1.3)	
Education	Junior college (3yr)	9 (3.9)	
	Bachelor's degree (4yr)	131 (57.0)	
	on Master's degree course	39 (17.0)	
	Master's degree	43 (18.7)	
	on Doctoral degree course	5 (2.2)	
	Doctoral degree	3 (1.3)	
Clinical experience (yr)	<3	42 (18.3)	9.4 (6.90)
	3-5	51 (22.3)	
	6-9	43 (18.8)	
	10-19	78 (34.1)	
	≥20	15 (6.6)	
Professional status	Staff nurse	172 (74.8)	
	Clinical nurse specialist	6 (2.6)	
	Nurse manager	52 (22.6)	
Clinical setting	General ward	123 (54.0)	
	Intensive care unit	35 (15.4)	
	Emergency unit	14 (6.1)	
	Others	56 (24.6)	

대상자의 EBP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정도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인식하는 EBP 촉진요인은 Table 3, Table 4와 같다. EBP 촉진요인은 전체 3.49점(SD=0.44)이었고, 하위요인별 점수를 살펴보면 임상실무를 위한 EBP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 3.89점(SD=0.54)으로 가장 높았고, EBP 발전을 위한 조직의 지원 3.71점(SD=0.51), 논문의 검색 및 평가기술 3.06점(SD=0.65), 연구관련 전문용어와 통계에 대한 지식 2.78점(SD=0.74), EBP 수행을 위한 시간보장과 할애의지 2.69점(SD=0.73)의 순이었다.

EBP 촉진요인의 개별 항목에 대한 분석을 위해 평균평점과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는 동의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EBP 촉진요인 항목 중 평균평점이 가장 높은 문항은 '문헌을 고찰하기 위해 병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로 4.29점(SD=0.69)이었고, 88.3%가 동의하였다. 다음으로 '간호 연구는 환자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로 4.22점(SD=0.69), 88.7%가 동의하였으며, '상급 간호관리자들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실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Table 2. EBP-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0)

Variables	Classification	n (%)
Taken nursing research course	Yes	166 (72.5)
	No	63 (27.5)
Taken statistical course	Yes	164 (71.3)
	No	66 (28.7)
Research participation in clinical unit	Yes	109 (47.6)
	No	120 (52.4)
Membership of academy	Yes	102 (44.7)
	No	126 (55.3)
Attendance of academic conference in recent 1 year	Yes	135 (59.5)
	No	92 (40.5)
Reading research article (per month)	Yes	57 (25.8)
	No	164 (74.2)
Needs for research evidence in clinical setting	Yes	218 (97.3)
	No	6 (2.7)
When the participants need research evidence in clinical setting	Training for junior nurses	31 (13.6)
	To be a competent expert	56 (24.6)
	To know about appropriate nursing process	88 (38.6)
	Errors in nursing practice	20 (8.8)
	New clinical environment	31 (13.6)
	Others	2 (0.9)
Information sources for research evidence	Literature review, computer search	171 (75.3)
	Expert (clinical nurse specialist, physician, etc.)	53 (23.4)
	None	2 (0.9)
	Others	1 (0.4)

Table 3. Nurses' Perceptions for EBP Facilitators

(N=230)

Subscales	M	SD	Minimum	Maximum
Availability of support to develop EBP	3.71	0.51	2.00	5.00
Belief in the value of EBP for patient care	3.89	0.54	2.00	5.00
Skills in locating and evaluating research reports	3.06	0.65	1.00	5.00
Knowledge of research language and statistics	2.78	0.74	1.00	4.50
Time to devote to EBP	2.69	0.73	1.00	5.00
Total	3.49	0.44	2.17	4.77

Table 4. Each Items of EBP Facilitators

(N=230)

Subscales and contributing items	M (SD)	n (%)*
Subscale 1 : Availability of support to develop evidence-based practice		
Nurses are encouraged to use the hospital computers to conduct literature reviews	4.29 (0.76)	203 (88.3)
Senior nurse administrators will support change in practice when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it	4.06 (0.68)	196 (86.0)
Nurses in my hospital have shown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practice on the basis of research findings	4.01 (0.64)	190 (82.6)
Nursing staff in my unit will endeavor to change practice when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it	4.01 (0.70)	188 (81.7)
The Nurse Unit Manager of my ward/unit would be supportive if I wanted to change practice on the basis of research	3.91 (0.73)	179 (78.2)
The hospital has a climate that encourages staff to pursue new ideas	3.80 (0.76)	162 (70.8)
Registered nurses in this hospital are encouraged to carry out research	3.79 (0.81)	156 (68.4)
I am encouraged to attend seminars and meetings where research findings are presented	3.59 (0.89)	135 (58.7)
Financial support to attend conferences is available if I apply to the hospital	3.47 (0.88)	126 (54.8)
There is a clinical educator on my ward/unit who would help me if I wanted to change practice on the basis of research	3.44 (0.79)	113 (49.8)
I have access to nurses with research training to help me interpret research findings	3.20 (0.93)	94 (41.1)
Hospital management would support practice based on research even if it was not in keeping with hospital policy	2.97 (0.99)	69 (30.1)
Subscale 2 : Belief in the value of evidence-based practice for patient care		
Nursing research is an important way of improving the quality of patient care	4.22 (0.69)	204 (88.7)
Reading research articles is critical for nurses if nurses are to be clinically effective	4.03 (0.74)	190 (82.6)
I would feel confident about changing hospital policy if there were well-defined processes to do so	4.02 (0.67)	190 (82.6)
Research helps nurses in their decision-making	3.92 (0.71)	179 (78.2)
Seeing other people using research findings to change clinical practice motivates me to do the same	3.85 (0.72)	168 (73.4)
Research helps me fulfil the responsibilities of my job	3.82 (0.67)	160 (69.9)
Nursing research is of interest to nurses	3.81 (0.81)	169 (73.5)
I am enthusiastic about using research to improve nursing practice	3.43 (0.80)	102 (44.4)
Subscale 3 : Skills in locating and evaluating research reports		
I have the skills necessary to conduct a computerized literature search	3.33 (0.80)	113 (45.2)
I have the necessary skills to evaluate qualitative research reports	3.04 (0.89)	71 (31.1)
I have the necessary skills to evaluate quantitative/statistical research reports	2.95 (0.80)	52 (22.6)
I am confident about my ability to evaluate research reports	2.94 (0.75)	48 (20.9)
Subscale 4 : Knowledge of research language and statistics		
I understand the language and terms of research articles	2.93 (0.83)	156 (68.1)
I do not have difficulty interpreting the statistics used in research	2.63 (0.84)	35 (15.2)
Subscale 5 : Time to devote to evidence-based practice		
I am willing to contribute to the writing of clinical guidelines based on research in my off-duty hours provided I am also able to do some of it in my work time	2.95 (0.94)	64 (27.9)
I have the time to read research articles and contribute to the writing of clinical guidelines based on research	2.68 (0.86)	41 (17.9)
I can arrange to spend some of my working day in the library	2.45 (1.05)	44 (19.1)

* = Frequency and percentage of 'agree' or 'strongly agree' answers

이다'로 4.06점(SD=0.68), 86.0% 동의의 순이었다. 반면,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근무시간의 일부를 도서관에서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2.45점(SD=

1.05), 19.1% 동의, '연구에 사용된 통계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2.63점(SD=0.84), 15.2%, '연구논문을 읽고, 연구에 근거한 임상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시간이 있다' 2.68점(SD=0.86),

17.9% 동의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EBP관련 특성에 따른 EBP 촉진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EBP관련 특성에 따른 EBP 촉진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는 나이(F=4.66, p=.004), 교육정도(F=2.50, p=.032), 임상경력(F=3.23, p=.013), 직위(F=6.08, p<.001), 근무부서(F=4.52, p=.004)에 따라서 EBP 촉진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사후검증 결과, 나이는 50세 이상이 23-29세보다, 교육정도는 박사학위자가 학사보다, 임상 경력은 20년 이상이 5년 미만 보다, 직위는 전문간호사 가 일

반간호사 보다, 근무부서는 중환자실과 기타부서가 응급실보다 EBP 촉진요인을 높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BP관련 특성에 따라 EBP 촉진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살펴보면, 연구방법 수강(t=2.78, p=.006), 통계분석방법 수강(t=2.52, p=.013), 임상연구 수행(t=2.81, p=.005), 학회 회원 가입(t=2.94, p=.004), 최근 일 년 이내 학회 참석(t=4.04, p<.001), 한 달에 한 번 이상 논문을 읽는 경우(t=4.20, p<.001)와 임상에서 연구근거의 필요성을 인식(t=2.12, p=.035) 하는 경우에 EBP 촉진 요인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

Table 5. EBP Facilitators by General and EBP-related Characteristics (N=230)

Variables	Classification	M (SD)	t or F	p	Duncan
Age (yr)	23-29 ^a	3.41 (0.43)	4.66	.004	a<d
	30-39 ^b	3.51 (0.47)			
	40-49 ^c	3.65 (0.35)			
	≥50 ^d	4.01 (0.13)			
	Education	Junior college (3yr) ^a			
Bachelor's degree (4yr) ^b	3.42 (0.44)				
on Master's degree course ^c	3.54 (0.35)				
Master's degree ^d	3.64 (0.45)				
on Doctoral degree course ^e	3.53 (0.72)				
Doctoral degree ^f	3.91 (0.14)				
Clinical experience (yr)	<3 ^a	3.38 (0.35)	3.23	.013	a,b<e
	3-5 ^b	3.37 (0.49)			
	6-9 ^c	3.53 (0.44)			
	10-19 ^d	3.55 (0.44)			
	≥20 ^e	3.72 (0.33)			
Professional status	Staff nurse ^a	3.44 (0.46)	6.08	<.001	a<b
	Clinical nurse specialist ^b	3.79 (0.37)			
	Nurse manager ^c	3.65 (0.34)			
Clinical setting	General ward ^a	3.43 (0.44)	4.52	.004	c<b,d
	Intensive care unit ^b	3.60 (0.43)			
	Emergency unit ^c	3.24 (0.39)			
	Others ^d	3.61 (0.43)			
Taken nursing research course	Yes	3.54 (0.44)	2.78	.006	
	No	3.37 (0.40)			
Taken statistical course	Yes	3.54 (0.43)	2.52	.013	
	No	3.38 (0.44)			
Research participation in clinical unit	Yes	3.57 (0.40)	2.81	.005	
	No	3.41 (0.47)			
Membership of academy	Yes	3.59 (0.44)	2.94	.004	
	No	3.42 (0.43)			
Attendance of academic conference in recent 1 year	Yes	3.59 (0.43)	4.04	<.001	
	No	3.35 (0.42)			
Reading research article (per month)	Yes	3.71 (0.39)	4.20	<.001	
	No	3.43 (0.44)			
Needs for research evidence in clinical setting	Yes	3.51 (0.44)	2.12	.035	
	No	3.12 (0.40)			

사 이상의 학력이 96.1%로 국내 82개 3차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Oh 등(2004)의 연구결과 62.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료수집 대상병원이 서울소재의 사립 종합병원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의 간호사가 많고 대다수가 3년 이상의 경력자로 전문학사의 경우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간호사의 EBP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방법이나 통계방법을 수강한 경험은 본 연구에서는 70% 이상이었는데, 이는 임상간호사 204명을 대상으로 한 Park (1997)의 연구결과 22.4% 보다 높았으며 국내 3차병원 간호사 437명을 대상으로 한 Oh 등(2004)의 연구결과 60.7%, 충남과 경남지역의 대학병원 간호사 238명을 대상으로 한 Yang과 Gu (2005)의 연구결과 85.7%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임상연구 수행경험 또한 본 연구에서는 47.6%였는데, 이는 Park (1997)의 연구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연구 수행경험 14.7% 보다는 높은 결과였으며 Oh 등(2004)의 연구와 Yang과 Gu (2005)의 연구에서 각각 53.3%, 45.4%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체적으로 2000년 이후 간호사들이 연구관련 교육에 접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간호사의 임상연구 수행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Yang과 Gu (200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외국에서 간호사들의 임상연구 수행 경험은 호주의 경우 65.3% (Hutchinson & Johnston, 2004), 터키의 경우 39.5% (Uysal, Temel, Ardahan, & Ozkahraman, 2010), 영국의 경우 29.0% (McKenna, Ashton, & Keeney, 2004)로 다양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간호사들은 업무 중 필요한 정보자원으로서 연구근거의 출처로 인적자원 보다는 학술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논문 등 문헌을 이용하는 경우가 75.3%로 나타났는데, 이는 Oh 등(2004)의 연구결과 58.5% 보다 높은 결과였다. 한편, 한 달에 한 번 이상 논문을 읽는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25.8%로 Park (2005)의 연구결과 18.9%, Oh 등(2004)의 연구결과 34%와 함께 40% 미만의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미국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Thiel과 Ghosh (2008)의 연구결과 82.7%, 호주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rior, Wilkinson과 Neville (2010)의 연구결과 60% 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간호사들이 실무에서 근거가 필요한 경우 문헌을 이용하기는 하나 일상적으로 논문을 읽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듯 간호사들이 관련 분야 논문을 읽지 않는 것은 논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료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한 어려움(Yang & Gu, 2005)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최신의 연구논문을 통해 실무근거를 찾고 환자간호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및

통계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Oh et al., 2004).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인식한 전체 EBP 촉진정도는 3.49점으로 중등도 이상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임상실무를 위한 EBP의 가치에 대한 신념, EBP 발전을 위한 조직의 지원, 논문의 검색 및 평가기술은 5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3점 이상이었으나 연구관련 전문용어와 통계에 대한 지식, EBP 수행을 위한 시간보장과 시간할애 의지는 3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타났다. 특히 EBP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 가장 높은 반면에 EBP 수행을 위한 시간보장과 시간할애 의지는 가장 낮았다. 호주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herriff 등(2007)의 연구에서는 임상실무를 위한 EBP의 가치에 대한 신념은 유사하게 가장 높은 EBP 촉진요인으로 나타났으나, EBP 수행을 위한 시간보장과 시간할애 의지는 평균평점 3점 이상의 중정도로 본 연구와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는 국내외 의료기관의 행정적 근무여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Melnyk 등(2004)은 EBP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EBP가 간호의 질과 환자결과를 개선시킨다고 강력하게 믿는 간호사들조차도 46%만이 연구결과가 간호실무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믿고 있으며, EBP에 대한 지식수준도 매우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EBP의 가치에 대한 신념은 비교적 높았지만 연구용어와 통계지식과 같은 EBP 관련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BP 촉진요인에 대한 동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Nagy 등(2001)의 연구에서 ‘병원 경영자는 병원정책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연구기반의 실무를 지원할 것이다’, ‘나는 연구논문을 읽고 연구에 근거한 임상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시간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와, Sherriff 등(2007)의 연구에서 ‘나는 양적/통계관련 연구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가 20%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에 사용된 통계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나는 연구논문을 읽고 연구에 근거한 임상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시간이 있다’, ‘근무시간의 일부를 도서관에서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가 20%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EBP를 위한 간호사 교육 시에는 연구에 사용된 통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EBP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논문을 읽고, 임상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EBP 수행을 활성화하려면 근무시간의 일부를 도서관에서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BP 수행을 위한 시간과 연구관련 전문용어와 통계에 대한 지식은 RU 또는 EBP 수행의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는

데,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Oh et al., 2004; Yang & Gu, 2005)에서 간호사가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시간부족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Yang과 Gu (2005)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연구수행을 위한 지지요구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통계분석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외에서 수행된 McInerney와 Suleman (2010)의 연구에서는 EBP 수행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시간의 부족이었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지식의 부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 순이었다. Upton과 Upton (2006)의 연구에서도 시간과 비용의 부족이 EBP 수행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EBP 수행 시간과 관련된 부분을 EBP 수행을 위한 시간보장과 시간할애 의지라는 EBP 촉진요인으로 평가하였는데, 간호사의 EBP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EBP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 주거나 필요 시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고 밤근무를 줄여주는 등 시간적, 금전적 보상 전략이 필요하겠다(Yang & Gu, 2005).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중정도 이하의 촉진정도를 보인 연구 검색 및 평가기술, 연구관련 용어 및 통계적 방법에 대한 지식은 Estrada (2009)가 EBP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 학습조직은 조직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역동적인 체계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문화를 가진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질문과 토론을 촉진하며, 협력과 팀 학습을 격려하는 등 전략적인 리더십과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EBP관련 특성에 따른 EBP 촉진정도는 간호사의 나이, 교육정도, 임상경력, 직위, 부서와 EBP관련 특성의 모든 변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Thiel과 Ghosh (2008)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지지되는데, 교육정도, 임상경력, 직위가 높을수록 EBP라는 개념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한 EBP 개념에의 노출은 EBP에 대한 지식, 태도, 활동을 증진시켜 결국 EBP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근무부서 중 중환자실의 EBP 촉진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온 점은 중환자실 같은 특수부서 일수록 간호사의 의사결정이 매우 높게 요구되고 있어 실무의 근거를 찾기 위해 더 자주 문헌을 검색하고 연구논문을 검토하는 등의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수준과 요구를 파악하여 좀 더 그 실무현장에 부합하는 단위별 EBP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병원 간호조직 차원에서 EBP 개념을 도입하고자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EBP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 국내병원들에서 도입, 적용되기 시작한 EBP와 관련하여 임상간호사의 활동과 간호사가 인지하는 EBP 촉진요인을 조직, 신념, 기술, 지식, 시간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간호에서의 EBP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간호실무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EBP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실무현장에서 EBP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연구관련 교육에 접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임상연구 수행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업무 중 근거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인적자원 보다는 학술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논문 등의 문헌을 이용하나, 한 달에 한번 이상 논문을 읽는 경우는 30% 미만으로 낮았다. 임상간호사가 인지하는 EBP 촉진정도는 중정도 이상 이었고, 임상실무를 위한 EBP의 가치에 대한 신념은 비교적 높고 EBP 발전을 위한 조직의 지원도 용이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연구를 검색하고 평가하는 기술과 연구용어와 통계 지식, EBP 수행을 위한 시간보장과 시간할애 의지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EBP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일상에서 연구근거를 탐색할 수 있는 EBP를 촉진하는 문화 조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EBP 역량 개발을 위해 연구를 검색하고 평가하는 기술, 연구관련 용어와 통계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간호사의 EBP 활동 시간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추후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최근 들어 각 의료기관마다 EBP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EBP 활성화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EBP 수행과 관련된 양적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EBP 프로그램을 경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Adib-Hajbaghery, M. (2007). Factors facilitating and inhibiting

- evidence-based nursing in Ir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8, 566-575.
- Estrada, N. (2009). Exploring perceptions of a learning organization by RNs and relationship to EBP beliefs and implementation in the acute care setting.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6, 200-209.
- Gerrish, K., Ashworth, P., Lacey, A., & Bailey, J. (2008). Developing evidence-based practice: experiences of senior and junior clinical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 62-73.
- Hutchinson, A. M., & Johnston, L. (2004). Bridging the divide: a survey of nurses' opinions regarding barriers to, and facilitators of, research utilization in the practice setting.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3, 304-315.
- Kim, M. Y., Kim, S. Y., Kim, Y. Y., Byun, J. H., & Jung, Y. Y. (2002). A study of relating factors to the research activity in an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8(1), 117-128.
- McKenna, H., Ashton, S., & Keeney, S. (2004). Barriers to evidence-based practice in primary ca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5, 178-189.
- McInerney, P., & Suleman, F. (2010). Exploring knowledge, attitudes, and barriers toward the use of evidence-based practice amongst academic health care practitioners in their teaching in a south african university: a pilot study.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7, 90-97.
- Melnyk, B. M., Fineout-Overholt, E., Feinstein, N. F., Li, H., Small, L., Wilcox, L., et al. (2004). Nurses' perceived knowledge, beliefs, skills and needs regarding evidence-based practice: implication for accelerating the paradigm shift.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1, 185-193.
- Nagy, S., Lumby, J., McKinley, C., & MacFarlane, C. (2001). Nurses' beliefs about the conditions that hinder or support evidence-based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7, 314-321.
- Nolan, P., & Bradley, E. (2008). Evidence-based practice: implications and concern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6, 388-393.
- Oh, E. G., Oh, H. J., & Lee, Y. J. (2004). Nurses' research activities and barriers of research util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4, 838-848.
- Olade, R. A. (2004). Evidence-based practice and research utilization activities among rural nurs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6, 220-225.
- Park, H. S. (2005). *A study on accessibility, usefulness, barriers of evidence based nursing of clinical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Park, J. W. (1997).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research activity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3(1), 235-252.
- Park, M. H. (2006).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evidence based nursing*. Seoul: Koonja.
- Pathman, D. E., Ricketts, T. R., & Konrad, T. R. (2006). How adults' access to outpatient physician services relates to the local supply of primary care physicians in the rural southeast. *Health Services Research*, 41, 79-102.
- Prior, P., Wilkinson, J., & Neville, S. (2010). Practice nurse use of evidence in clinical practice: A descriptive survey. *Nursing Praxis in New Zealand*, 26(2), 14-25.
- Robin, P. N., Sandra, L. D., Stephanie, S. P., Linda, C. P., & Kathleen, M. W. (2007). *Johns Hopkins nursing evidence-based practice model and guidelines*. Indianapolis: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 Sackett, D. L., Straus, S. E., Richardson, W. S., Rosenberg, W. M., & Haynes, R. B. (1997). *Evidence-based medicine: How to practice and teach EBM*.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 Scott, K., & McSherry, R. (2009). Evidence-based nursing: clarifying the concepts for nurses in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8, 1085-1095.
- Sherriff, K. L., Wallis, M., & Chaboyer, W. (2007). Nurses' attitudes to and perceptions of knowledge and skills regarding evidence-base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3(6), 363-369.
- Thiel, L., & Ghosh, Y. (2008). Determining registered nurses' readiness for evidence-based practice.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5, 182-192.
- Upton D., & Upton P. (2006). Knowledge and use of evidence-based practice by allied health and health science professionals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Allied Health*, 35, 127-133.
- Uysal, A., Temel, A. B., Ardahan, M., & Ozkahraman, S. (2010). Barriers to research utilization among nurses in Turke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9, 3443-3452.
- Yang, Y. H., & Gu, M. O. (2005). Research related activities and its related factors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2, 421-429.

Nurses' Perceptions regarding Evidence-Based Practice Facilitators in a Tertiary Hospital*

Cho, Myung Sook¹⁾ · Song, Mi Ra²⁾ · Cha, Sun Kyung³⁾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 Nurse Manager, 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Nursing Department, Samsung Medical Center

3) RN, 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Nursing Department, Samsung Medical Cent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ilitators of evidence-based practice (EBP) in Clinical Nurses. **Method:** The instruments used in study were the EBP facilitator scale developed by Nagy et al. and a questionnaire on EBP-related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from 230 nurses at a tertiary hospital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howed that nurses had more experience related to research courses and clinical research. However, the proportion of nurses who reviewed relevant articles still remained low. The respondents had positive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supports for EBP and belief in the value of EBP, whereas they had negative perceptions of skills in locating and evaluating research reports, knowledge of research terms and statistics, and time to devote to EBP.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to develop and implement an EBP programs. In future, EBP programs should cover the nurses' skills to search and review research literature as well as their knowledge of research terms and statistics. Furthermore, nurses will require help to ensure that there is adequate time to devote to EBP.

Key words : Evidence-based practice, Nurses, Research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clinical nursing research fund of Samsung Medical Center in 200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Mi Ra

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Nursing Department, Samsung Medical Center
50, Irwon-dong, Gangnam-gu, Seoul 135-710, Korea.

Tel: 82-2-3410-2903 Fax: 82-2-3410-2920 E-mail: sami922@naver.com